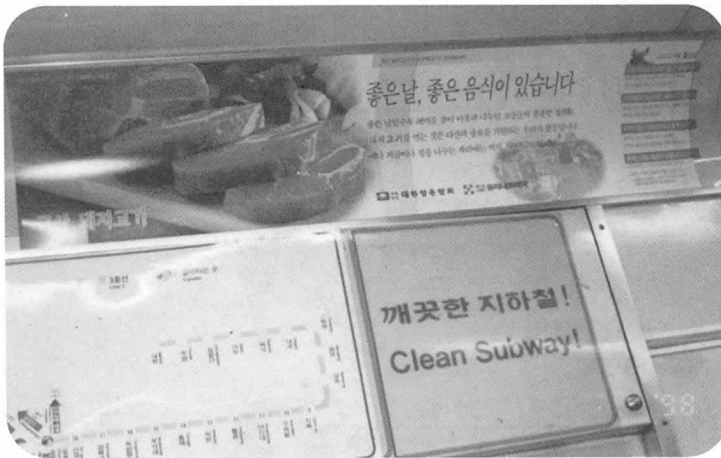


본회, 지하철서 돼지고기 소비홍보 적극 전개

-푸리나코리아 후원으로 서울, 부산 등 5개 지하철 노선에서

-홍보부-



▲지하철 2호선에 게첨된 본회의 돼지고기 소비홍보물

본회는 최근 경기침체로 소비가 감소하고, 돼지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하철 승객들을 상대로 국산 돼지고기 소비촉진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해 돼지고기 소비를 촉진하고 돼지가격을 안정시키기로 했다.

본회는 이를 위해 9월10일부터 서울 지하철 1호선과 2호선, 3호선, 5호선을 비롯해 부산지하철 등 5개 노선의 지하철 차내에 국산 돼지고기의 우수성을 알리는 광고를 시작했다. 이번 광고는 99년 1월10일까지 4개월간 계속된다.

본회가 제작한 지하철 차내 광고는 가로 100cm×세로26cm 크기로, 왼편에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 정도로 먹고 싶은 모습의 돼지등심을 썰어 놓은 사진을 배경으로 중앙에 “좋은 날, 좋은 음식이 있습니다.”라는 헤드 카피로 디자인 했다. 헤드카피 하단에는 “좋은 날일수록 돼지를 잡아 이웃과 나누던 조상들의 훈훈한 정(情), 돼지고기를 먹는 것은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는 우리의 전통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정을 나누는 자리에는 역시 돼지고기입니다.”라는 내용을 삽입해 돼지고기가 예로부터 선조들이 즐겨 먹던 좋은 음식이고, 소비자들이 가장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음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광고 오른편에는 “돼지고기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장수식품입니다”, “중금속을 해독해 줍니다”, “피부미용과 피로회복에 좋습니다”, “콜레스테롤 함량이 낮습니다” 등 그동안 돼지고기가 일반인들에게 잘못 알려졌던 부분과 좋은 점을 알리고, 돼지고기가 공해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식품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특히 왼편 돼지고기 사진 밑에 “국산 돼지고기”라는 문구를 넣고, 중앙 상단에 국산 돼지고기가 더 맛있다는 점을 강조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국산 돼지고기를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본회는 이번 지하철 광고로 돼지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미지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회는 지하철 승객들이 돼지고기의 주소비층인 점을 감안해 이번에 광고를 하지 않는 수도권내 다른 지하철과 대구지하철에서도 돼지고기 소비홍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양돈협회의 지하철 광고는 (주)재그리 브랜드 푸리나 코리아에서 전액 후원했다. **養豚**